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당당하게 맞이해 봄

자긍심

6 SIGHT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에너지의 미래 이끈다!
Grid-K ADMS 전국 구축완료 기념행사 현장을 가다

10 KEPCO STORY 1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일군 4년 만의 흑자전환,
그리고 함께 가야 할 여정

14 KEPCO STORY 2
「전력망특별법」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KEPCO ACTION

18 ESSAY
자긍심

20 OPINION
자긍심을 높이는 멘탈관리법 4가지

24 CURATION
내 삶을 지켜본 사물이 찾아준 '나의 자긍심'

28 THANKS FOR PRESENT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고마운 이들에게 꽃으로 전한 마음
순천전력지사 변전부

LIFE ACTION

32 KEPCO PICK
추구미

34 GUERRILLA EVENTS
빙글빙글 돌아서 숲~골인!
강서양천지사 직원들의 '앞치마로 공 받기'

38 SPACE
나도 몰랐던 내 추구미를 찾아가는 곳,
사운즈 한남

42 TREND
당신의 '추구미'는 무엇인가요?

44 MY PROMPT
구글 제미니(Gemini), 나만의 비서가 되다

46 KEPCO TALK
불편한 상담소

48 KEPCO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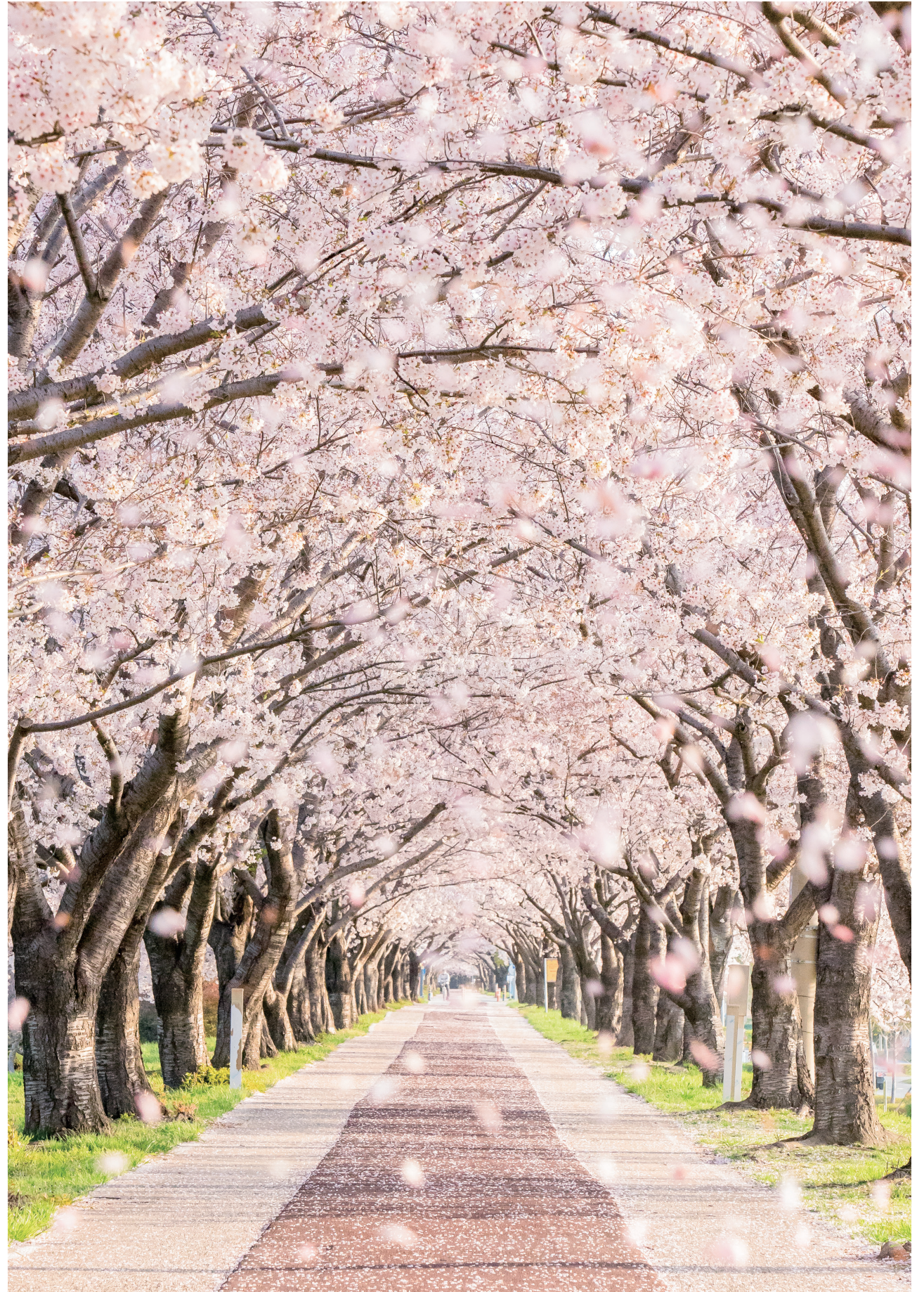
50 KEPCO QUIZ



지난주 찾아온 봄이 흩어진다.
그에겐 모든 찰나가 눈부셨다.
꽃잎을 지탱해 주는 나무와 가지,
뿌리에서 차올라 말초까지 채우는 양분과
앞섰을 스치는 바람, 햇살의 서사가 그저 좋았다.

시간이 흐르고 조용한 바람에
안녕을 고하며 떠나는 꽃잎의 무리들.
꽃불을 흐드러지게 달고 만개한 순간도
눈부시지만 덧없이 흩어지는
엔딩 역시 황홀하다.

당당한 봄날의 벚꽃엔딩.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에너지의 미래 이끈다!

Grid-K ADMS 전국 구축완료 기념행사 현장을 가다

Text 편집실

에너지산업에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선두에서 응전하기 위해 Grid-K ADMS를 개발해 전국 구축을 완료한 한전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3월 6일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동철 사장 등 경영진을 비롯한 ADMS 개발 및 확대 구축에 기여한 본사와 지역본부 담당자와 개발회사 대표, 산·학·연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주요기능을 시연하고, 공로직원 및 협력사에 대한 포상과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ADMS의 국내의 사업에 활용할 'Grid-K ADMS' 브랜드를 선포했다. 앞으로도, 한전은 탄소중립 실현과 안정적인 배전망 운영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전력 시스템 혁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Grid-K ADMS 전국 구축완료 기념식

KEPCO APRIL 2025



미래형 배전망 종합운영 플랫폼, ADMS

변전소를 거친 전기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배전 계통은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와 ESS, EV 등 여러 유연성 자원의 연결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해진 배전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한전은 ADMS를 개발했다.

ADMS는 Advanced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시스템 안정성이 강화되어 분산형 전원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신속한 정전복구가 가능한 미래형 배전망 종합운영 플랫폼이다.

분산형 전원에 최적화된 배전망 운영

한전의 ADMS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대규모 배전망 계통운전을 하며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력데이터의 융합으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해 분산형 전원에 최적화된 배전망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분산전원에 의한 계통의 전압 변화가 감지되면 출력을 제어하여 배전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또 배전선로의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을 분석하고 계통을 재구성하여 추가 전력망 확충 없이 재생에너지 연계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 건설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더 많은 재생에너지 연계가 가능하다.

고장이 발생하면 정전 구간을 계통도와 GIS에 표시하여 신속하게 고장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고장자동처리 기능을 통해 빠르게 정전 복구를 시행하여 정전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ADMS는 무결점 계통운전을 위해 서버 클러스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평상시에는 각 서버가 데이터를 분담, 처리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나머지 서버가 그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기존 196개 사업소에 개별로 설치되어 있던 서버를 분부 단위 15개 서버로 통합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한전 자체기술로 ADMS 개발·구축 완료

ADMS는 한전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다. 해외제품 도입에는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소요되고, 국내 운영 최적화에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한전은 다년간 축적된 기술역량을 활용해 학계, 사외 전문가 등 약 500여 명의 개발 인력과 15개의 파트너사와 함께 거듭된 난관을 극복한 결과 한전 자체 기술로 ADMS를 개발했다.

2017년부터 약 30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하였으며, 2021년 충북본부를 시작으로 2022~2024년까지 3년간 전국 15개 지역본부(39개 배전센터, 196개 사업소)의 ADMS 전환을 완료했다.

현재는 공군 전력망 등 국내 타 기관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신시장을 개척하여 파트너사들과 동반성장하고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목표: 탄소중립과 디지털 변환 실현

재생에너지 감시 제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과 소비부하를 구분하고 실시간으로 배전계통을 감시 제어합니다.

전국 배전망 연계 재생에너지 171,340호 24.7GW 발전량 감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2035년

2036년

2037년

2038년

2039년

2040년

2041년

2042년

2043년

2044년

2045년

2046년

2047년

2048년

2049년

2050년

2051년

2052년

2053년

2054년

2055년

2056년

2057년

2058년

2059년

2060년

2061년

2062년

2063년

2064년

2065년

2066년

2067년

2068년

2069년

2070년

2071년

2072년

2073년

2074년

2075년

2076년

2077년

2078년

2079년

2080년

2081년

2082년

2083년

2084년

2085년

2086년

2087년

2088년

2089년

2090년

2091년

2092년

2093년

2094년

2095년

2096년

2097년

2098년

2099년

2100년

2101년

2102년

2103년

2104년

2105년

2106년

2107년

2108년

2109년

2110년

2111년

2112년

2113년

2114년

2115년

2116년

2117년

2118년

2119년

2120년

2121년

2122년

2123년

2124년

2125년

2126년

2127년

2128년

2129년

2130년

2131년

2132년

2133년

2134년

2135년

2136년

2137년

2138년

2139년

2140년

2141년

2142년

2143년

2144년

2145년

2146년

2147년

2148년

2149년

2150년

2151년

2152년

2153년

2154년

2155년

2156년

2157년

2158년

2159년

2160년

2161년

2162년

2163년

2164년

2165년

2166년

2167년

2168년

2169년

2170년

2171년

2172년

2173년

2174년

2175년

2176년

2177년

2178년

2179년

2180년

2181년

2182년

2183년

2184년

2185년

2186년

2187년

2188년

2189년

2190년

2191년

2192년

2193년

2194년

2195년

2196년

2197년

2198년

2199년

2200년

2201년

2202년

2203년

2204년

2205년

2206년

2207년

2208년

2209년

2210년

2211년

2212년

2213년

2214년

2215년

2216년

2217년

2218년

2219년

2220년

2221년

2222년

2223년

2224년

2225년

2226년

2227년

2228년

2229년

2230년

2231년

2232년

2233년

2234년

2235년

2236년

2237년

2238년

2239년

2240년

2241년

2242년

2243년

2244년

2245년

2246년

2247년

2248년

2249년

2250년

2251년

2252년

2253년

2254년

2255년

2256년

2257년

2258년

2259년

2260년

2261년

2262년

2263년

2264년

2265년

2266년

2267년

2268년

2269년

2270년

2271년

2272년

2273년

2274년

2275년

2276년

2277년

2278년

2279년

2280년

2281년

2282년

2283년

2284년

2285년

2286년

2287년

2288년

2289년

2290년

2291년

2292년

2293년

2294년

2295년

2296년

2297년

2298년

22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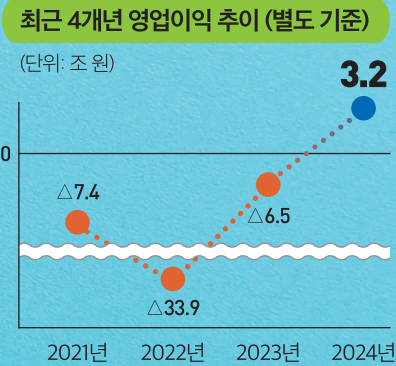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일군 4년 만의 흑자전환, 그리고 함께 가야 할 여정

지난 3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봄소식보다 더 빨리 우리 한전 가족들에게 찾아온 기쁜 소식이 있다.
바로 한전이 2021년부터 이어진 길고 길었던 적자의 터널을 벗어나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뉴스다.

Text 김한결 지속가능경영실 차장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흑자전환

2024년 우리 회사의 실적은,
4년 만의 Turn-around!



그간 한전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폭등이 었다. 하지만 가격 인상의 부담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안길 수 없었기에 한전이 국가 경 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그 충격으로 재무위기를 맞았다. 내부적으로 강도 높은 자구 노력과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4년간이나 지속하며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의 결과로, 2025년 드디어 흑자전환이라는 기적과도 같은 경영성과를 달성하였다. 임직원 모두의 감회가 남다를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함께 적자 극복을 위 해 어려움을 감내한 동료들과 서로 격려의 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충분히 기뻐했다면 잠시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흑자전환을 할 수 있었던 원동 력에 대해 돌아보고, 지금 한전의 재무상황은 정확히 어떠한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더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볼 시점이다.

2024년 한전은 약 3.2조 원의 영업이익(별도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7조 원 증가한, 4년 만의 흑자전환이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수치이다. 영업이익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 2023년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4.5조 원을 제외하면 2024년 한 해의 이익 개선 효과는 5.2조 원이며, 이중 무려 71%에 달하는 3.7조 원이 비용 절감 노력의 결과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6.7원/kWh 흡수한 것과 같은 효과다. 매출액 증가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전기판매량이 0.7% 증가하였고 판매단가는 6.6% 상 승하여 전기판매수익이 5.9조 원 증가하였다.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연료 가격이 안정세 를 보이며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전년 대비 약 8.1조 원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손익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며 재무 실적이 호전되었고, 3.2조 원의 영업이 익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전환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반전이 가능했던 배경 에는 전 직원이 동참한 강도 높은 재무개선 노력이 있었다.

흑자전환의 원동력,
재정건전화 실적 살펴보기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한전은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전방위적인 재무 개선 노력 중에서 정부가 지정하여 관리 중인 대표적인 재무개선 방안은 '재정건전화 5개년 계획'이다. 한전은 2022년 8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재무건전성 회복을 목표로 한 5개년 14.3조 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불충분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가격 불안정 지속 등의 영향으로 재무 전망이 더욱 악화되었고,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매년 재정건전화 목표를 확대하여 현재 총 5개년 20.9조 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재정건전화 계획의 목표 확대와 동시에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점검 TF를 구성했고, 매월 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데 전사 역량을 총 결집했으며, 그 결과 2024년에는 목표의 141% 수준인 3.6조 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이행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자. 먼저 자산매각 분야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이행 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동산 5개소의 매각과 회원권 매각 등을 통해 약 500억 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사업조정 분야에서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과 같이 법정계획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 소요가 증가하였고, 반도체 등 산업단지와 신규 택지지구의 전력공급 촉진으로 전력망 확충을 위해 실 틈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원가관리 및 건설사업 공정관리로 투자비 효율화를 추진하고, 본연의 전력사업 외 긴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시행시기를 이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0.8조 원의 투자비를 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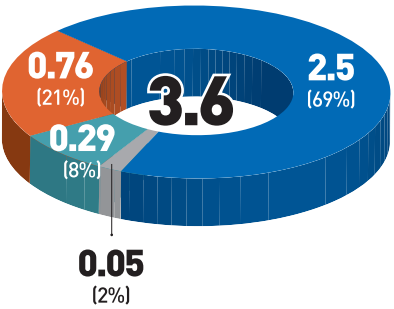
전기요금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입전력비의 경우, 재정건전화 계획에 포함된 전력시장제도 개선 과제 시행을 통해 1.8조 원을 절감하였다. 특히 고객부하차단제도는 중요 전력 설비가 고장일 때 전력수요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하여 평상시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량을 늘릴 수 있는 제도로, 구입비 감소 효과가 크고 발전계약 완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같은 석탄발전 감축제도 탄력 운영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며 이를 관철한 것도 주효했다. 구입비 외 비용에서는 전력설비 관리기준 효율화 및 예산 절감 목표 상향 등 초긴축 예산운동을 통해 0.7조 원을 절감했다. 재정건전화 계획 외 별도로 발전연료세제 인하 노력 등 추가 자구노력을 통해 1.2조 원을 감축하기도 했다.

수익확대 분야에서는 고압고객 개폐기 조작수수료 부과 등의 기준 개선과 표준시설부담금, 배전공가 이용요금 등의 단가 현실화를 통해 전기판매수익 외 수익 0.3조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렇듯 재정건전화 계획을 초과달성하면서 재무개선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보여 주는 한편, 실질적인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결집하였다. 임금 반납이라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시행하면서 한전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를 알렸고, 이는 요금 정상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조 단위의 재정건전화 계획보다 금액의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그 의미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3직급 이상 임금인상분을 반납한 데 이어, 경영평가성과급 일부 반납에 전 직원이 동참하였다. 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시행하였고, 희망퇴직 인원 148명에 대한 위로금 재원은 성과급 반납분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을 좌우하는 최대과제인 전기요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고, 정부의 협의를 이끌면서 4년 만의 흑자전환을 건인하고 경영정상화로 향하는 소중한 걸음을 내디뎠다.

2024년 재정건전화 실적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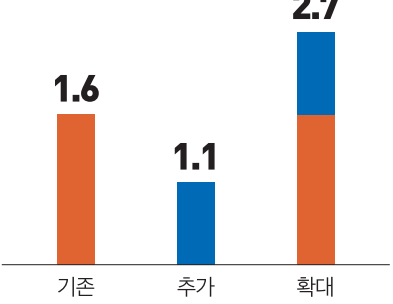


- 경영효율화**
 - 고객부하차단제도 등 전력시장제도 개선 과제 시행을 통한 구입전력비 절감 : 1.8조 원
 - 전력설비 관리기준 효율화 등 초긴축 예산 운영을 통한 구입비 외 비용 절감 : 0.7조 원
- 사업조정**
 - 투자비 효율화 및 비긴급 사업 시행시기 이연 및 규모 축소 등
- 수익확대**
 - 고압고객 개폐기 조작수수료 부과,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현실화 등
- 자산매각**
 - 부동산 및 회원권 매각 등

재무개선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

2025년 재정건전화 목표 확대(안)

(단위: 조 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러한 재무개선 노력을 통해 재무위기를 벗어났다고 선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난 3년간 대규모의 영업손실로 누적된 적자는 현재도 34.7조 원에 이르며, 매년 부담해야 할 이자만 해도 4조 원이 넘는다. 대규모 차입으로 이자가 불어나며 부채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사채발행한도를 당초 2배에서 5배까지 확대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 조항의 일몰 기한은 2027년 말까지다. 즉, 2027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사채발행 배수를 2배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데 아직 대규모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외부요인도 불확실성이 높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영여건 변동, 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정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재반등할 위험도 크다. 또 계속되는 전기화 추세 및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대규모 송배전망 설비 투자도 더는 늦출 수 없다. 여전히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재무개선 가속화를 위해, 2025년 재정건전화 연간 목표 확대를 추진 중이다. 기존 목표 1.6조 원에서 2.7조 원 규모로 목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산 이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운영 연장 결정(24.12월) 등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조 원대의 목표를 확대할 예정이다.

'반구십리(半九十里)'는 '백 리를 가려는 사람은 구십 리에 이르고서도 겨우 절반 정도에 왔다고 여긴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다. 이는 목표한 것을 이룰 때까지 마무리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도 올해로 어느덧 재정건전화 계획 4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회사의 어려움을 함께 감내한 전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때까지 혁신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 반구십리의 의지를 되새기며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앞으로도 재정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전력시장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정상화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2만 3천여 명의 임직원 개개인이 홍보대사가 되어 한전의 재무상황과 자구노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널리 알려진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없는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

SURPLUS

「전력망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에너지 3법’. 거기에 포함된 세 가지의 법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와 깊숙이 연관돼 있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 3법 중 「전력망특별법」을 다뤄 보려고 한다.

Text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조교수

에너지 3법의 탄생

통상 에너지 3법으로 알려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2025년 2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후, 같은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였다. 이제 이 '에너지 3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에너지 3법 중 「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특별법」은 공포된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해상풍력특별법」은 공포된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3법의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3법은 신규 데이터센터의 등장,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단지의 확대,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최종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 등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전력망특별법」의 경우, 신규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낮아 무탄소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와 첨단 산업에 대한 전력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 처분을 위한 법으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민간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 등 지역 현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부 주도의 입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이들 법은 무탄소 전원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구축,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전력 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력망특별법」의 주요 내용

「전력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신설하고(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신설), 전력망 확충법에 따라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의제 및 영향 평가 특례를 적용하며(인허가 의제 및 영향 평가 특례의 적용), 국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된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차별화된 보상 및 지원책).

우선 「전력망특별법」 제1조는 특별법의 입법 목적을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주요 국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이어지는 제2조는 송·변전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 및 전력 계통을 정의함으로써 제1조에서 제시된 입법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모든 345kV 이상의 송·변전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특별법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제5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전력 계통 포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력망 확충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전력망 확충 전망과 단계별 추진전략,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자원조달 방안, 연관 산업의 생태계 조성·관리 방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수용성 제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이렇게 수립

된 기본계획은 공정회와 전력망 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제6조 내지 제7조).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전력망위원회는 전력망 설비 지정, 입지 선정, 인허가 조정, 갈등 조정, 실시 계획의 승인 등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게 된다(제8조 및 제9조).

특별법 제10조부터 제17조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특례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실시 계획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 개발 사업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의견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신해야 하고, 만약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제11조).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제13조), 환경 영향 평가 및 재해 영향 평가의 특례를 통해 심의 및 승인 기간을 단축하여 절차를 축소 및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5조 및 제16조).

그동안 한전이 추진했던 송전망 건설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신규 전력망 건설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특별법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다. 우선 사업 시행자의 토지 취득 및 사용 시, 보상액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 사업 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1조). 또한 기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별개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한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제22조), 개발 사업 구역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 대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 지원(제23조),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24조) 방안 등이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발전 사업자 및 판매 사업자는 발전 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제27조).

한편 특별법 제25조는 전력망 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가가 개발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전력망 개발 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력망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될 한국전력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단순히 사업자에게 투자 자원 조달 의무를 부여할 경우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 볼 수 있다.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력망특별법」은 재생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발전 설비의 비중 확대와 인공지능 산업, 데이터센터 확대 등 집약 전력 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로 이해된다. 그동안 송전망 건설 사업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부족, 낮은 주민 수용성 등으로 인해 전력망 확충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에 정부 주도의 전력망 확충, 보상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한 주민 수용성의 제고,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망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전력망특별법」시행을 통해 전력 수요의 급증과 발전 설비의 용량 증가에 발맞추어 송전 설비 등 전력망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허가 의제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지연을 해소하고, 전력의 생산지 우선 공급을 명문화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가 전력망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함에 따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35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긍심

자신과 자신에 관련된 것들 즉 자신이 속한
공동체 등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Text 편집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서사를 이해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존재의 서사가 완성된다.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의 동력으로서 빛을 밝혀온 한전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맥락에서 한전인들의 오늘을 인식하고 자긍심과 자존을 품어야 할 때다.
그러한 의미에서 월간KEPCO 4월호의 테마는 “자긍심”이다.



자극심을 높이는 멘탈관리법 4가지

자극심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들이 있다. 심리학 박사가 알려 주는 자극심을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처럼 건강한 멘탈로 자극심을 갖고 살아가는 법을 소개한다.

Text 박준화 심리학 박사 Illustrator MOON



자극심을 높이는 기본, 건강한 멘탈

존 F. 케네디가 NASA를 방문했을 때 일이다. 청소하는 직원들에게 “무엇 하고 있냐”라고 묻자 직원들은 “바닥을 닦기 위해 걸레질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한 직원은 케네디의 이목을 끌만한 대답을 했다. “저는 인간을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 또는 국가나 인류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길 때 자극심과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자극심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들은 만족감과 행복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회복력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생활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자극심을 느끼며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한 멘탈을 누리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며 자극심을 만끽하고 싶어도 반복되는 일상과 스트레스에 치여 ‘월급 받으러 마지못해 출근하는 거지’라는 생각만 든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극심을 결정하는 자기와의 대화

사람들은 깨어있는 3분의 1 이상의 시간 동안 현실을 살지 못한다. 현실을 살지 못한다면 뭘 한다는 걸까?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저 사람은 왜 운전을 저렇게 하지?', '오늘 점심은 누구랑 먹지?', '오늘 퇴근하고 뭐 하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자기와의 대화는 소리 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능력인데, 자극심이 충만한 사람들의 자기대화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하루 중 겪는 사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대화의 빈도는 높고, 자극심을 갉아먹는 부정적 자기대화의 빈도는 낮다.

만약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등의 부정적 자기대화를 많이 한다면, 자극심이 높았던 사람이라든가 자극심 타이어의 바람은 빠지고 점차 의욕도 의미도 잃어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박진영 씨는 "어떤 걸 먹으면 당신처럼 건강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좋은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건강한 자극심 관리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생각을 하려 애쓰는 것보다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것처럼 부정적 자기대화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극심 관리법 4가지가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부정적 생각에 명찰 달기

부정적 자기대화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부정적 생각에 명찰 달기다. 『손자병법』의 명언은 자극심 관리에도 적용된다. 부정적 자기대화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생각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부정적 자기대화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지도 못하는 중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이지도 알아채지도 못하는 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고양이가 오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두면 된다. 부정적 생각에도 방울을 달 수 있는데, 부정적 생각에 이름을 지어 주기만 하면 된다. 만약 하루에도 여러 번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 거 같아'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에 '벌레'라고 이름을 붙여 주면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러 준다. "어이 벌레, 또 왔어?"

생각에 이름을 지어 주면 보이지 않던 생각의 정체가 명확해진다. 이름은 별명 부르듯 단어로 지으면 되는데, 단지 호감 가는 이름이 아니라 경계심을 가지게 하는 이름이면 무엇이든 괜찮다. 이렇게 부정적 생각에 명찰을 달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름을 불러 주면, 적의 정체를 명확히 알아챌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부정적 생각과 나를 분리할 수도 있게 된다.

생각에 도전 걸기

전갈과 지네가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다. 자칫하면 서로 엉겨붙어 싸우다 모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묘책이 전갈에게 떠올랐다. 전갈이 지네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나 많은 발이 얹히지 않게 일사불란하게 잘 걸을 수 있지?"

뜻밖의 칭찬에 뽀뽀해진 지네는 그간에 한 번도 의식하지 않았던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듣고 보니 그렇네. 이렇게나 많은 발을 나는 어떻게 한꺼번에 잘 움직이면서 걷고 있지? 지네가 수백 개의 발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잘 걸어 보려고 할수록 발은 점점 더 엉켜 결국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갈은 움푹달싹 못 하게 된 지네를 독침 한 방으로 제압할 수 있었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짝 맞춰 움직여지는 지네의 발처럼, 부정적 자기대화도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중에 저절로 진행되곤 한다. 이렇게 자동항법 장치처럼 자동으로 진행되던 부정적 자기대화에 변화를 주려면 자동을 수동으로 바꾸어 주면 되는데, 그러려면 전갈이 지네에게 쓴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

곧, 신경 쓰지 않던 것을 무지 신경 쓰게 만들지만 하면 된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나는 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생각이 든다면, 이 생각에 질문을 던지면 된다. '진짜 그런가?',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정말 단 하나도 없나?', '실수는 했지만, 아침에 출근 시간은 제대로 잘 지키지 않나?', '나를 가장 아끼는 사람도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까?'

●● 부정적 생각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생각을 대신할 만한 대체 상품을 찾아보면 된다. '이럴 땐 내가 긴장해서 실수하네, '할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될지도 몰라, '이건 못했지만, 생각보다 나는 괜찮을 사람일지도 몰라. ●●

상품 가치 떨어트리기

편의점에 가면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중 5만 개 정도의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들은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들과 비슷하다. 우리는 하루 중에 수시로 생각 편의점에 들러 5만 개 정도의 생각 상품 가운데 뭔가를 구매하곤 한다. 그런데 자극심을 갉아먹는 부정적 생각들은 오랫동안 생각 편의점에 들를 때마다 애용해서 구매했던 상품들이라 편의점 주인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 생각 상품을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배치해 놓았을 수 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구매해 왔던 생각 상품을 오늘도 편의점에 들러 구매하지 않으려면 그 상품이 사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품 가치를 떨어트리면 된다. 부정적 생각의 가치를 떨어트리려면 그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 소리를 5배 정도 느리게 머릿속에서 재생해 보면 된다. 만약 오늘도 '나는 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머릿속에서 그 소리를 5배 느리게 재생해 보는 거다.

"나는..... 왜..... 제..... 대..... 로..... 하..... 는..... 게..... 하나..... 도....."

유튜브 볼 때 지루한 영상은 몇 초 만에 꺼 버리듯, 뇌도 지루한 걸 싫어한다. 부정적 자기대화를 몇 배 느리게 재생하다 보면 뇌가 "지루해" "듣기 싫어" "이제 그만" 하면서 부정적 생각의 상품 가치는 떨어지고, 그럴수록 부정적 생각을 별로 사고 싶지 않게 된다.

다른 상품 구매하기

앞선 3가지 단계를 통해 부정적 생각에 명찰을 붙이고, 이 생각이 진짜 맞는지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 보고, 5배 느리게 재생하면서 상품 가치를 떨어트렸다면, 이제는 부정적 생각이 들더라도 더 이상 그 생각을 '사고 싶지 않게' 될 수 있다.

부정적 생각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생각을 대신할 만한 대체 상품을 찾아보면 된다. '이럴 땐 내가 긴장해서 실수하네, '할수록 점점 더 잘하게 될지도 몰라, '이건 못했지만, 생각보다 나는 괜찮을 사람일지도 몰라'

부정적 생각이 또 떠오르면, 그때마다 종이를 꺼내놓고 잠시 이 생각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 생각에 뭐가 있을지 3개를 적어본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대체 생각 상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부정적 생각이 들 때마다 새로운 생각 상품을 대신 집어 들기만 하면 된다.

앞서 말한 방법들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면 회사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온대도 자극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나를 믿고, 또 내 동료와 단체를 믿고 저 멀리서 벌레처럼 기어 오는 부정적 생각을 우리의 금지로 물리쳐 버리자.



내 삶을 지켜본 사물이 찾아준 ‘나’의 자긍심

《사물들의 힘》

평범한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이 느껴진다.
그러다 점점 빠져들어 내가 그 사물이 되고, 심지어는 사물의 감정까지 더듬어 보게 된다.
별것 아닌 사물이 예술로 재탄생하며, 신비한 힘을 내뿜는 장면을 직접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Text 문예은 Photo 황지현



프로젝터 테스트
박진아, 2008

예술과 일상의 경계 속 찾아낸 나의 자긍심

스페이스 이수에서 열리는 《사물들의 힘》은 예술과 일상의 경계에 대해 열 명의 작가가 참여해 일상 속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전시는 소모품으로 만든 가습기, 평생에 걸쳐 입었던 유니폼, 지점토로 빚은 통닭 두 마리, 거대한 카펫 그물로 짠 향아리, 돌 위에 쌓아 올린 A4 용지 등 총 10점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일상의 물건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 속에 관람객을 세워 놓는다. 일견 낯설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친숙한 물건이다. 하나같이 나의 삶을 함께해 온 사물들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 예술품의 자격을 안고서, 내가 나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이 될 자격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자긍심 아닐까? 열 명의 작가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물건을 발굴하고 경의를 표함으로써 예술로 삼는다.



유니폼/들:자화상/들: 나의 39년 인생
서도호, 2006



알라딘 인터체인지
임민욱, 2008

A4를 위한 소조
박이소, 2000



가습기
이주요, 1998-1999

정체불명의 물건이 늘어서 있다. 어쩐지 익숙한 모양새에 '설마?' 했다면, 그렇다. 작품의 이름 그대로 '가습기'다. '가습기'는 다양한 소모품과 이에 따른 다양한 모습을 하지만 어떤 형태건 본래의 역할에는 충실하다.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모든 사물은 제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한 끝에 당당히 한 편의 예술 작품으로 미술관에 입성했다. 작가는 조금씩 달라져도 내가 나의 역할을 다한다면, 그리하여 자긍심을 느낀다면 나는 '나'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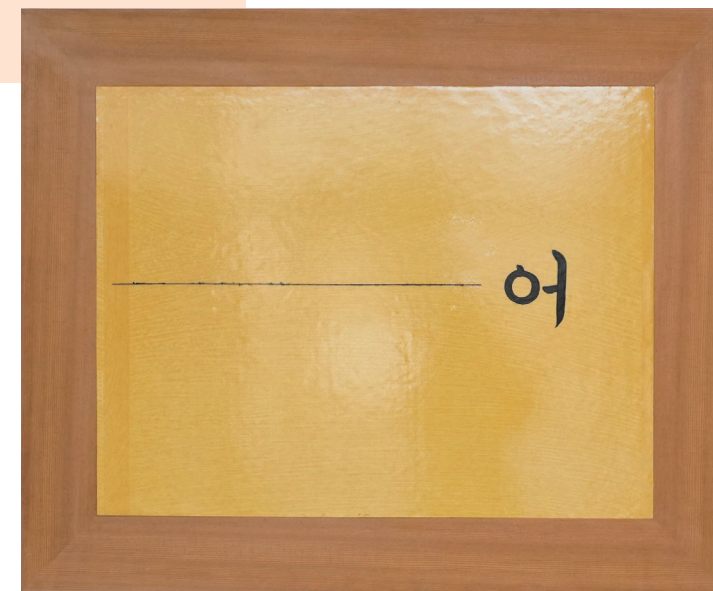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서도호 작가의 「유니폼/들:자화상/들: 나의 39년 인생」이다. 정갈하게 걸린 유니폼은 복잡한 설명 없이도 한 사람의 일생을 설명한다. 동시에 그 유니폼에 담긴 역사적 시간도 함께 전시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꿈을 대는 역사를 고스란히 겪어 온 삶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내 삶의 파도 같은 시간을 대표하는 옷들을 떠올리고, 지금의 자신이 입고 있는 옷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자긍심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두 점의 통닭이 비슷한 자세로, 그러나 분명히 다르게 누워 있다. 총 12점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12개의 조각적 조리법」 중 6번과 7번이 전시되었다. 흔히들 예술은 현실의 모방이라고 한다. 그러나 작가는 이 통닭 조각을 판매한 수익금을 지역 아동센터에 치킨 쿠폰으로 전달했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순간이다. 남들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내가 나로서 떳떳하다면 진짜가 아닐 이유가 없다.



12개의 조각적 조리법 -#6, #7
김범, 2007-2011



어
정서영, 1996

옷(衣)과 음식(食)을 보았으면 다음으로는 집(住)이다. 정서영 작가는 '노란 장판' 하나를 뚝 떼어와 벽에 걸어 두었다. 작품 「어」는 '노란 장판' 위에서는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생활이 삶으로 쌓여 나간다. 그리고 그 장판 위로 우리의 입에서 수십 번 흘러나오는 '어' 그 한마디가 올라가 있다. 작가는 생활 속 가장 친숙한 것들이 예술이 된다면 우리의 삶 역시 예술이 아닐 이유가 없지 않겠냐고 은근하게 묻는다.



FM 400
베르트랑 라비에, 1986

나를 낯설게 보기

《사물들의 힘》은 사물과 예술품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며 낯설게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전시다. 내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보아서 감흥이 없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 감각이 확장되어 일상 역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바뀐 것은 단 하나, 나의 시선뿐이다. 그러니 이제껏 나 자신이 평범하다고만 생각했다면 낯설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 나라는 존재를 떠올려보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지점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나라는 사람을 이루어 온 경험과 나를 겪어 온 사물들이 입을 모아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페이스 이수로 발걸음을 옮기자.

《사물들의 힘》

기간 2025.01.13. - 04.25.
시간 월~금요일, 13:00 - 18:00
장소 스페이스 이수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84 이수화학빌딩
관람료 입장료 무료
휴관일 토, 일, 공휴일



전시 더보기



신영철 차장

남우민 대리

이승호 대리

김우빈 대리

박영복 부장

한나 주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고마운 이들에게 꽃으로 전한 마음

순천전력지사 변전부

꽃샘추위가 가고 완연한 봄이 왔다. 두껍고 어두운 겉옷을 벗고 얇고 밝은색의 옷을 입게 되는 4월을 맞아해 옷차림만큼 사무실도 화사하게 가꾸고 싶다는 순천전력지사 변전부 직원들에게 사랑스러운 꽃바구니와 푸릇한 화분을 선물했다.

Text 허승희 Photo 황지현



우리 순천전력지사 변전부는요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업단지와 단일 제철소 중 세계 최대 규모인 광양제철소를 밝히는 동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바로 순천전력지사이다.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역의 변전소를 모두 관할하는 순천전력지사는 광주전남권 전력수요의 절반이나 책임지는 셈이다. 이들이 책임지는 변전소는 23개로 총 65명의 인원에 교대근무 및 현장업무 인원만 해도 43명이나 된다.

변전부는 변전소에서 전력공급을 수행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일을 총괄하는 변전운영팀, 변압기 등 변전소 내부에 있는 전력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고치는 계획정비팀, 변전설비 고장을 사전에 진단하고 전력을 공급할 주요 고객들을 관리하는 예방정비팀, 그리고 변전소의 여러 설비 간의 제어, 감시에 필요한 ICT 설비를 관리하는 전자제어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고객 감동 실현을 위한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언제나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이다.

큰 공장 단위 고객들이 많다 보니 정전이나 전력 품질에 예민하기 때문에 3월이 지나고 봄철이 오면 현장 작업 때문에 변전부의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진다. 모두의 노고를 알기에 사무실의 빈자리만 봐도 애뜻한 마음이 든다. “순천전력지사 사육이 오래되기도 했고, 다들 바쁘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사무실을 꾸밀



여력이 없어 사무실 미관이 다소 심심합니다. 봄을 맞이해 사무실을 화사하게 꾸미고, 직원들의 텐션을 올려보고자 꽃바구니와 화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영철 차장은 바쁜 와중에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력을 잊지 않고 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를 마련했다고 한다.

365일 화사한 사무실을 위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2명의 직원은 부장, 팀장, 과장급을 총 6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1990년대생부터 2001년생인데 소위 MZ세대로 이루어졌다. 직원들의 나이가 비슷한 덕분에 직원 화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순천전력지사 변전부의 특징 중 하나가 팀원 사이의 협력적인 분위기라고 한다.

또 설비 운전을 위해 현장에서 24시간이 부족하도록 고생하는 직원들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천전력지사에서 굵직한 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다. 문서에도 기록되지 않은 각 변전소들의 히스토리를 직접 경험해 온 덕분에, 드물지만 설비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대처 방안을 순식간에 마련해 늘 힘이 되는 존재들이다.

순천전력지사 변전부에 근사한 꽃바구니와 화분이 도착하자 자리에 있던 직원들의 얼굴에 함박 미소가 번졌다. “다들 일만 하고 있어서 몰랐을 텐데, 이렇게 예쁜 꽃과 화분을 보면 정말 좋아하겠어요. 사무실 직원들 모두 애정을 갖고 화분을 길러 보려고요” 박영복 부장은 점심을 먹고 돌아와 깜짝 선물을 보고 놀랄 직원들 생각에 신이 난 듯했다.

알록달록한 꽃바구니 옆의 드라세나 콤팩타와 아비스 고사리, 스투키, 피시본 선인장은 마치 여기가 원래 본인들의 자리였다는 듯 암전히 자리 잡고 있었다.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

이렇게 예쁜 꽃과 화분을 받고 기념사진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며 모두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기 시작했다. 햇살 좋은 날 모두 밖에 모여 사진을 찍는데 꼭 소풍이라도 온 듯 즐거워 보였다. 박영복 부장은 직원들과 눈만 마주쳐도 호탕하게 웃어 남우민 대리와 한나 대리까지 덩달아 배꼽을 잡게 만들었다. “이런 것도 향이 있나요?” 이승호 대리는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향기라곤 없을 것 같은 스투키에 코를 대고 향을 맡으며 새로운 가족이 될 식물에게 눈을 떼지 못했다. 남우민 대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 슬쩍 따라서 코를 갖다 대보기도 했다. 순천전력지사 변전부는 매년 늘어나는 변전소와 오래된 설비들을 관리하느라 올해도 언제나처럼 바쁠 예정이다. 올 한 해도 고장이나 사고 없이 무사히 변전설비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는 게 순천전력지사 변전부의 첫 번째 목표다.

매일 어두운 변전소 안에서 변압기 소음을 들으며 묵묵히 일을 하는 변전부 직원들 덕분에 변전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그들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힘들면 서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테다. 지금처럼 항상 웃으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순천전력지사 변전부 직원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자.



선물신청자
신영철
순천전력지사
변전부 차장

사무실로 배달 온 화분 중 하나인 드라세나 콤팩타의 꽃말은 ‘번영’, ‘행복’, ‘행운’ 이라고 하는데요. 순천전력지사 변전부가 행복하게 일한다면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건 곧 한국전력공사의 번영이 아닐까요? 이번 기회로 늘 애쓰는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되어 기쁘네요.



추구미

롤모델과 워너비의 새 이름.

어떤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Text 편집실

SNS에서 시작된 ‘추구미’라는 단어는 ‘추구하다’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美)’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추구미는 한마디로 ‘원하는 이미지’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추구미를 얻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추구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목적에 이를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구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닿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점을 보면 추구미는 어쩌면 삶에서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만나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은 계속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동력이 되고, 더욱 풍부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추구미를 향한 여정을 함께 떠나 봅시다.



빙글빙글 돌아서 슛~골인! 강서양천지사 직원들의 '앞치마로 공 받기'

언제쯤 적응될까 싶은 비몽사몽인 아침.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도 정신은 아직도 꿈나라에 있는 것만 같다. 그럴 때 뇌를 깨우는 방법으로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강서양천지사 직원들의 특별한 아침 운동 현장을 지켜보았다.

Text 허승희 Photo 황지현

<강서팀>

고객지원부 정숙은
한민훈
배전운영부 박규영
조성진



<양천팀>

배전운영부 김봉경
정인권
요금관리부 장재윤
전력공급부 이우민



남다른 텐션의 주인공들

두 번째 게릴라 이벤트를 위해 아침 일찍 방문한 강서양천지사. 게임 준비를 위해 계단으로 열심히 오른 4층 강당에서 촬영팀을 맞이한 건 직원들이 손수 준비한 현수막이었다. 성심껏 만들어 큰 중이에 프린트한 팀 소개 현수막에서 이날 만나볼 참여 직원들의 진심이 느껴지는 듯했다. 심상치 않은 적극성에 준비한 게임이 시시하지는 않을지 걱정될 지경이었다.

한참 게임을 세팅하는 동안 이번 이벤트의 주인공들이 속속 등장했다. 현수막에 적힌 독특한 직원 소개 문구들에 호기심이 생기던 중이었는데, 마침 도착한 직원들에게 직접 뜻풀이를 요청했다. 우선 강서양천지사의 사옥을 지탱하는 고객지원부의 작은 거인 한민훈 대리와 지사의 고객만족도를 책임지는 고객사랑 정숙은 대리.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요금관리부의 수금공주 장재운 대리. 곧 품절 예정이라는 강서양천지사의 타이거우즈 전력공급부의 이우민 대리는 해맑게 웃으며 다른 직원들의 별명 소개를 듣고 있었다.

배전운영부에서는 야망을 품고 게임에 참가한 직원이 네 명이나 된다. 테니스의 왕자 봉코비치 김봉경 대리, 민원인도 사로잡는 밀키바닐라엔젤 박규영 대리. 사번으로는 대선배지만 나이로는 막내인 친절한 남자 정인권 대리. 마지막으로 길쭉한 팔다리로 분위기를 압도하다가 입만 열면 왠지 친근해지는 한양조씨 조성진 대리가 있다. 박규영 대리는 본인의 별명을 이날 처음 들었다며 “이거 그대로 나가도 괜찮나요? 이준혁 배우님 팬분들이 민원을 넣는 건 아닐까요?”라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다.

공과 사는 확실하게

강서양천지사는 매년 부서별로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테니스나 볼링, 탁구, 보드 게임 등 지사 동호회 활동으로 몇몇 직원들은 서로 만난 적이 있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 소규모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부서 간 만날 기회가 줄었다고 한다. 준비 시간 내내 오래 알고 지낸 듯 웃음이 끊이지 않아서 슬쩍 물었더니 직원들끼리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편안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게 강서양천지사의 특징인 것 같다며 웃었다. 그러나 연습 게임 시간이 주어지자 강서팀과 양천팀으로 나뉜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서운 기세로 연습을 시작했다. 모두 우승을 목표로 게릴라 이벤트에 참가한 만큼 연습 시간에도 진지하게 전략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2월호 게릴라 이벤트를 본 후 우승 상금을 노리는 직원들이 있어 함께 의기투합하여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노리는 직원들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이번 게임은 앞치마로 공 받기 게임이다. 4명씩 팀을 나눈 뒤 그 안에서 2인 1조를 구성해 공을 던지고 앞치마로 받으면 되는 간단한 게임이다. 그러나 직원들이 더욱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맑은 정신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 ‘코끼리코’라는 요소를 추가했다. 즉, 공을 던지는 사람은 코끼리코를 던 후에 맞은 편의 앞치마를 든 조원에게 공을 전달하면 끝이다. 준비된 공은 5개. 그중 멀리 날아가지 않는 풍

선이 복병일 텐데 앞으로 어떤 게임이 진행될지 흥미진진한 상황이 계속됐다.

더 많이 웃은 팀이 승리

게임은 양천팀의 정인권 대리와 이우민 대리의 선공으로 시작됐다. “기선을 제압해 버리겠습니다.” 완벽한 팀워크로 강서팀의 의욕을 꺾겠다며 자리에 선 두 남자는 게임을 시작하고 순식간에 모든 공을 받고 말았다. 다음은 강서팀의 박규영 대리와 조성진 대리가 나섰다. “OB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구경하던 직원들의 입꼬리가 썰룩거리는 것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기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작! 구호와 함께 코끼리코를 돌기 시작한 조성진 대리. 다섯 바퀴를 다 돌더니 갓 태어난 기린처럼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긴 다리를 휘청거렸다. 양천팀의 활약을 본 강서팀의 팀원들은 “던져! 빨리!” 큰 소리로 외치며 사정없이 회초리를 휘둘렀다. 뱅뱅 도는 바닥을 보며 애써 힘주어 모든 공을 던진 조성진 대리는 힘없이 풀썩 쓰러졌다. 그 모습에 다들 웃음을 참지 못했다.

중간 점검 결과는 5대 5. 동점이 나온 상황에 마지막 세트로 결판을 짓기 위해 게임의 난이도를 조절했다. 테니스의 왕자답게 김봉경 대리는 높아진 난이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코끼리코를 돌고 비틀거리면서도 장재운 대리의 앞치마에 정확히 공을 꽂았다. 예체능은 재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직전 게임의 조성진 대리의 모습이 떠올라 왠지 가슴이 아팠다.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있는 만큼 한민훈 대리가 에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다. 정숙은 대리와 멋진 콤비를 이뤄 아슬한 고비를 넘기고 또다시 동점을 만들어 낸 것. 연장전으로 이어진 게임은 양천팀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길어지는 게임에 모두 지칠 법도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 예능인들 만큼의 텐션을 유지해 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고된 게임을 마치고 모두 허기진 배를 움켜쥔 채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떠났다. 다들 얼마나 웃었는지 텅 빈 강당에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퍼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 정도로 즐거웠다면 승패 결과에 상관 없이 모두가 승리자는 아닐까?



게릴라 이벤트
솔직 후기



양천팀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오랜만에 직원들과 함께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 우승까지 하게 되어 더 행복하네요. 양천팀과 멋진 식사 자리를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강서팀

직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가 많이 없는데, 특별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게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RESTROOM

SECOND KITCHEN

나도 몰랐던 내 추구미를 찾아가는 곳, 사운즈 한남

예쁘고 좋은 공간과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취향이다. 아무리 좋아도 취향이 아니면 찾지 않게 되니까 말이다. 취향을 찾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 내가 몰랐던 취향, 더 나아가 나의 '추구미'까지 찾게 되는 복합문화공간 '사운즈 한남'이다.

Text 채청비 Photo 황지현

프렌치 무드 한 스푼
핀터레스트 감성을 추구미로 삼고 싶다면?

대사관이 즐비한 골목 안, 사운즈 한남은 도심 생활에서도 쉽고 행복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스러운 장소다. 하나의 거대한 건물보다는 건물을 동으로 나누어서 규칙적이지 않은 공간을 형성하고, 동 안에서 광장, 골목, 터널과 같은 구성을 마련했다. 우선 한적한 유럽의 거리 같은 1층으로 들어가면, 먼저 보이는 것은 모노톤의 벽돌 건물과 빨강과 트렌디한 실외 테이블이다. 언뜻 보면 유럽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분위기가 복합문화공간에 조성됐더니 신기할 따름인데, 이곳에 바로 리조트처럼 심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위치했다. ‘카페 르상스’는 따뜻하고 느긋한 무드가 돋보이며, 낮에는 빵과 커피를, 저녁에는 치즈 안주와 와인을 마실 수 있는 휴식처 같은 공간이다. 특히 카페라테에 부드럽고 달콤한 크림을 얹어주는 르상스 크림 커피가 별미. 2층으로 올라가면 주목할 만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매거진 B’와 협업한 ‘%아라비카’를 만날 수 있다. 매거진 B가 선택한 브랜드와 %아라비카의 깔끔하고 품미 좋은 커피, 원두를 한 곳에서 즐기며 창밖으로 사운즈 한남의 여유로운 풍경을 구경해 보자! 유럽풍 핀터레스트 감성이 추구미라면 놓칠 수 없는 공간이다.



어디서 좋은 향 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추구미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가게더라도 사운즈 한남에서는 저마다의 독특함을 갖추기 마련인데, 이는 사운즈 한남 자체가 ‘작은 마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확실히 짓지 않고 들쭉날쭉한 건물 간의 단차를 유지한 것도 마을의 분위기를 살리고 싶어서라고 마을의 상점들이 주인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사운즈 한남에서는 비슷한 숨이더라도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는 중이다. 특히 라이프 스타일 숨은 우리의 삶과 관련 있는 만큼 더욱 맞춤형으로 꾸며져 있다. 나만의 취향을 찾고 싶거나 자연스러운 맛을 추구하는 이라면, ‘이솝’과 ‘브루니아플라워’에 들러 보는 건 어떨까? 이솝은 한국의 전통 가마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의 분위기가 섬세한 매력을 더한다. 2층에 위치한 라운지에서는 짙은 꽃내음을 담은 향부터 비에 젖은 숲길의 향, 심신이 편안해지는 아로마 향 등 다양한 향들이 즐비한데, 그중 자신의 취향을 저격하는 향기 하나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브루니아플라워는 매장 내의 인테리어가 녹색으로 꾸며져 있어 마치 숲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곳에서는 꽃에 대해 플로리스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꽃을 추천받을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다발을 만들어 셀프 선물을 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비로소 취향을 찾은 나에게 주는 선물인 셈이다.



1 카페 르상스
2%아라비카 매거진 B
3%아라비카 매거진 B
4이솝
5브루니아플라워
6코튼 클럽

가장 고층에서 느끼는 뉴욕의 향기
클래식한 추구미를 갖춘 공간

사운즈 한남의 ‘SOUND’에는 ‘여러 목소리가 공존하는 곳’, ‘건강한, 온전한, 깊고 평화로운’이라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휴식을 취하며 콘텐츠를 깊이 읽고, 다채로운 공간을 둘러보면서 나만의 추구미를 찾기에 좋은 공간인 셈이다. 특히 5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가지의 가게가 나타난다. 1980년대의 뉴욕 감성과 고전적인 분위기,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미로 삼았다면 이 두 곳을 추천한다. ‘코튼 클럽’은 재즈 뮤지션이 연주하는 재즈와 맛있는 음식, 술이 풍성한 재즈바다. 사운즈 한남이 마을을 표방하는 것처럼 이 공간은 넓지 않고 소담하게 연주를 즐길 수 있어 더욱 좋다. ‘오르페오’는 영화와 오페라, 클래식, 예술에 기반한 영상을 상영하는 음악 콘텐츠 전문 상영관이다. 사운즈 한남에서 추구하는 깊이 읽기와 맥락이 닿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들이 직접 선보이는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나고 싶다면 두 공간으로 직진하자.



당신의 '추구미'는 무엇인가요?

나의 추구미 TREND



MZ세대를 중심으로 '추구미'가 유행이다. SNS에 '#추구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완전 내 추구미'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이는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MZ세대들의 가치관이 반영돼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Text 최행좌

MZ세대가 추구미에 빠진 이유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추구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추구미는 '추구하다'와 한자 '미(美)'의 합성어로, 주로 개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라이프스타일, 가치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예전의 '롤모델'이나 '워너비'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연예인의 스타일을 보고 "완전 내 추구미"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요즘 제 추구미는 배우 변우석이에요", "아이브 장원영은 내 추구미 아니야?"라고 자신의 취향을 드러낸다.

유튜브에도 '추구미'를 검색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중 뷰티 채널 <Hong's MakeuPlay>가 올린 영상 '정은채의 글로우 메이크업 | 정은채의 추구미? | 정은채 꾸안꾸 팁?'은 59만 회, 패션 채널 <AliceFunk>도 '여배우 스타일로 보는 내 추구미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조회수 10만 회를 기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SNS에 '#추구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업로드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그렇다면 MZ세대가 추구미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추구미의 포인트는 본인의 만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기엔 이상할지라도 내 눈에만 예쁘면 된다는 마인드로 작은 물건에서부터 스타일까지 자신의 취향을 뽐낸다. 재미있으면서도 나만의 취향을 보여주는 게 요즘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인 셈이다. 당연히 각자의 '추구미'는 모두 다르다. 이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치관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우리가 상상도 못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중이다. 앞으로 '추구미'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어떤 콘텐츠가 생길지 기대가 된다.



유튜브 @Hong's MakeuPlay

도달가능미도 매력 있네

추구미와 함께 등장한 단어로 '도달가능미'도 있다. 추구미가 이상향이라면 도달가능미는 말 그대로 내가 현실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모습을 뜻한다. 도달가능미는 주로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등 SNS에서 자신의 추구미와 도달가능미를 비교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관련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 내 추구미는 아침형 인간이지만, 도달가능미는 일찍 일어난 탓에 오후 내내 졸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혹은 미니멀리스트(Minimalist)가 추구미지만 도달가능미는 맥시멀리스트(Maximalist)인 경우다.

추구미와 도달가능미의 차이는 분명하다. 하지만 도달가능미의 매력은 단순히 현실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자신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게 특징이다.

도달가능미가 SNS에서 빠질 수 없는 밈으로 인기를 끌자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공식 계정에도 등장했다. 지난해 KCC건설의 스위첸 광고 중 '식구의 부활' 김치전 편이 대표적이다. 이 광고는 요린이(요리 초보자)가 바삭한 김치전을 멋지게 뒤집으려다 실패한 내용이다. '아무렴 어떻냐'라는 듯 접시에 무심히 담긴 모습은 내가 원하는 것에 다가가려고 노력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강조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어쩌면 광고 속 요린이처럼 도달가능미는 마음먹기에 따라 한 곳 차이일지도 모른다. 추구미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자. 현실적인 아름다움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자신감을 가져 보자. MZ세대들이 도달가능미에 열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테니 말이다.



인스타그램 @for_everyoung10



인스타그램 @byeonwooseok

구글 제미나이(Gemini), 나만의 비서가 되다

Gemini

구글의 AI 비서(Assistant) 서비스, Gemini는 오픈 AI의 ChatGPT 등 경쟁서비스와 비교할 때,
‘검색 강자’인 구글의 서비스답게 정보검색 결과의 풍부함이 가장 돋보인다.
그리고 여타 구글 서비스와의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강점도 있다.

Text 김경달 더코어 대표

접근이 쉬운 AI, 자료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은 기본

Gemini(이하 제미나이)는 접근이 쉽다. 별도 앱을 안 깔아도 된다.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의 주소창에 ‘@’를 입력해 보자. 네 개의 메뉴가 뜬다. 이중 첫 번째가 ‘Gemini에게 질문하기’다. 이를 선택한 뒤 질문을 넣으면 저절로 제미나이 서비스 페이지로 넘어가며 답변이 나온다. 모바일의 경우 연관 검색어 중 두 번째로 뜨는 페이지로 들어가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면 된다.

제미나이를 잘 활용하면 자료 조사와 요약 및 분석, 아이디어 제안,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심층적인 조사보고서를 원한다면 최근 추가된 ‘Deep Research’ 기능을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25년 마케팅 트렌드를 조사해 줘’를 입력한 뒤, 나온 결과값을 살펴보자. 급변하는 기술과 소비자 행동 변화에 발맞춰 진화하는 트렌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이를 토대로 특정 브

랜드 및 제품의 마케팅 개선방안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내용을 보고용 전략보고서로 제출하고 싶다면, ‘보고서 용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줘’라고 입력하면 서론-본론-결론 형태의 초안을 만들어 준다. 다만, 출처를 확인하고 교차 검증한다든지, 보고자의 관점으로 재작성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일 잘하는 제미나이의 강점

- 다양한 구글 서비스와 만나다

제미나이의 강점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구글 자사의 주요 서비스와 연동된다는 점이다. 구글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지메일(Gmail)과 구글 시트(Google Sheets), 독스(Docs), 미트(Meet) 등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하면 무척 편리하다.

-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

마지막으로 제미나이는 창작 지원 기능을 통해 시와 소설, 블로그, 광고 카피 등 여러 형태의 글쓰기를 지원한다. ‘작문 에디터’ 기능으로 맞춤법 오류 수정 및 특정한 문제로 바꾸는 등으로 글을 다듬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텍스트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다.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한 시대에 홍보용 글도 똑딱 작성해 준다. 인스타그램에 카페의 홍보 글을 올리고 싶다고 가정해 보자. 카페의 주력 메뉴, 분위기 정도만 입력을 하면 홍보 포인트에 따라 적절한 문구를 세 가지 정도 추천해 준다. 여기에 해시태그 활용법과 사진을 업로드하는 팁까지 알려 주니 제미나이만 잘 따라 한다면 홍보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카페 홍보 글을 써 줘. 주력 메뉴는 아인슈페너, 모던한 분위기의 카페야.

1. 감성적인 분위기 강조
☕ 완벽한 오후를 위한 선택, [카페 이름]의 아인슈페너. 부드러운 크림과 진한 커피의 조화가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아인슈페너맛집 #모던카페 #감성카페 #카페추천

2. 메뉴 특징 어필
[카페 이름] 시그니처 메뉴, 아인슈페너! 쫄득한 크림과 깊은 풍미의 커피가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맛.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아인슈페너 #커피맛집 #디저트카페 #카페투어

tip. 고품질의 아인슈페너 사진이나 카페 내부 사진을 함께 게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미나이가 생성한
홍보용 이미지

제미나이를 잘 활용하고 싶은데 도무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왼쪽 하단의 ‘Gem 관리자’ 버튼을 눌러 보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도우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커리어 컨설턴트’, 코딩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코딩 파트너’,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싶다면 ‘과외 선생님’을 누르면 카테고리에 따라 이용 예시들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 제미나이와 대화를 시작해 보자.

가령, 제미나이에서 상황과 고객의 정보에 대해 입력해 이메일 초안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이를 지메일로 바로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신한 이메일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답장도 만들어 준다. 구글 시트에선 다양한 표를 빠르게 만들거나 입력된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 생성이 가능하고, 구글 미트로 화상회의를 하면 회의록까지 작성해 준다. 단, 이러한 연동 서비스들은 유료 서비스로 제공 중이기 때문에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를 사용하거나 ‘One AI Premium’에 가입해야 한다.

받은 편지함의 새로운 편지들을 읽어 줘

◆ 네, 최근 받은 2개의 메일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김 팀장님으로부터 ‘월간 회의 일정 변경’
-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로 변경
2)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요청’
- 이번 달 말까지 제출
3) 클라이언트 A사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 문의’
-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변 요청
※ 제미나이 G-mail 읽기 기능 사용 예시

- 어마어마한 코딩 실력

제미나이의 코딩 실력은 상위 15% 정도라고 한다. 기본적인 코드 생성은 물론 디버깅,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놓치기 쉬운 주의 사항까지 친절히 알려 준다. 나아가 코드의 오류를 찾고 개선점을 제안해 준다. Python, JavaScript, Java, C++ 등 지원하는 언어도 다양하다. 이를 통해 한 달에 최대 18만 개의 코드를 완성할 수 있으니, 사실상 무제한 용량을 제공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제미나이는 AI 코딩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프로그래밍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보다 쉽게 코딩을 익히고 실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제미나이가 작성한 C++ 웹 스크래핑 코드

```
C++  
  
#include <iostream>  
#include <curl/curl.h>  
#include <soup/soup.h>  
  
size_t write_callback(void* contents, size_t size, size_t nmemb, std::string* output)  
{  
    size_t total_size = size * nmemb;  
    output->append((char*)contents, total_size);  
    return total_size;  
}  
  
std::string scrape_website(const std::string& url) {  
    CURL* curl = curl_easy_init();  
    std::string response_string;
```

※ C++로 웹 스크래핑을 하는 것은 Python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상담소

Text 편집실

Q. 저 쇼츠 중독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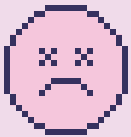
저는 별다른 취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퇴근 후에 삶이 너무 짧아서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잠을 줄여서라도 그 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줄려서 눈이 반쯤 감기는데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OTT 플랫폼을 계속 들여다보고 다음, 다음, 다음 영상... 스크롤의 무한 반복입니다. 잠이 쏟아져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치는 바람에 얼굴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새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그럼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 집니다.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의미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 영상들을 보느라 시간을 날린 제가 너무 싫어집니다. 또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니 다음날 피곤한 상태로 사무실에서 멍하게 있을 때가 많아요. 밝은 화면을 오래 봐서인지 눈이 침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 저,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과 한 몸이 된 폰아일체

A. 당장 움직여. 연진아!

쇼츠의 세계는 정말 늪과 같아. 손가락 하나로 다양한 감정의 희로애락을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지. 연진아, 방 안에 가득한 어둠을 제거한답시고, 쓰레받기로 쓸거나 발로 차고 손을 휘저어도 어둠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불을 켜면 어둠은 순식간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지지. 침대에 누워 쇼츠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해 봤자 너는 결국 쇼츠를 볼 거야. 하지만 지금 당장 떨치고 일어나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과 같은 몸 움직이기를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 가며 운동 루틴을 만들어 간다면 어느새 쇼츠의 세계에서 빠져나온 자신을 발견할 거야. 어쩌면 너무 간단해서 실천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여기서 키포인트는 '지금 당장'이야. 머뭇거리고 미루면 영원히 너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움직이길, 그래서 5년 후 너의 모습이 더 이상 한자가 아니길... 뭐, 아님 말고. 너무 뻔히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미래로 향해 가는 것도 또한 너의 선택이니까.

퇴직한 송혜교



Q. 만인의 연인에 빠져 희망고문 당하고 있어요

아주 인기가 많은 분을 좋아하고 있어요. 뛰어난 외모와 화술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분이죠. 저도 그 매력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마주 보고 대화하고 싶어서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하는데요. 원하는 만큼의 리액션이 아니라 속상합니다. 그분에게 저는 그저 연락 오는 많은 이들 중 한 명인 것 같고, 전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또 연락하면 시큰둥한데 막상 만나면 다정하고 친절해서 헛갈리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희망을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표현하다 보면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겠죠?

나는솔로134기 영식

A. 매력에서 나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이명화에오~ 네 그래오~ 그니까 그쪽이 인기 많은 사람의 매력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그거죠? 특이하다 중말! 그거슨 매력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헛갈리지 말고 나오시면 돼. 그리고 그쪽이 매력을 키우셔. 살쥘서 고민이면 드시던 거 그만 내려놓으시고요. 돈이 모자라든 나가서 돈을 버시든 돼. 자신만의 특별한 것을 갖고 닦아서 유쾌 상쾌 통쾌! 매력을 더 키워야지, 여그서 상담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오? 예~ 그래오~

502호 집주인 이명화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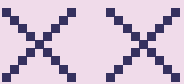
#매력

#솔로

#희망고문

KEPCO TALK에 참여해 주세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위로나 격려, 공감보다는 팩트에 입각한 훈계, 죽비소리와 같은 지적, 경책을 지향합니다. 사우 여러분은 고민 내용을 올리실 수도 있고, 고민에 대한 답변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운맛 가득한 이 상담소에 사우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쇼츠

#인스타

#스마트폰

#OTT

KEPCO NEWS

2025. 04



서울대, KT와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실증 MOU 체결
한전과 서울대학교, KT는 지난 3월19일 서울대학교에서 전력산업 특화 AI 개발·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력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과 인프라를 개발·활용해 국가 전력시스템 전반의 효율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 위함이다.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은 먼저 ‘Hybrid Cloud 기반 전력산업 특화 AI 솔루션·보안시스템 구축안’을 마련하고 실증하여 전력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Hybrid Cloud 기반 전력산업 특화 AI 솔루션·보안시스템 구축안은 사내 민감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부망 생성형 AI와 외부망 범용 생성형 AI(챗GPT 등)가 결합된 형태로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면서, 최신 생성형 AI의 강점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이번 협약을 통해 AI의 예측력과 실시간 대응력을 활용하여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고객 서비스 혁신 및 타 산업(IT 등)과의 신사업모델 공동개발 등 범국가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행안부 주관 데이터 평가 최고등급 달성
한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80점 이상) 등급과 역대 최고점을 획득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97.75점(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89점),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98점(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 89점)을 받아 자체 최고점을 달성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확대 및 개방관리 노력 수준을 점검하는 평가다. 한전은 지난 2019년부터 전력데이터

개방 포털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활용도가 저조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구간 세분화, 패키지 데이터셋 제작 등으로 활용도를 높인 것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관 내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노력을 점검하는 평가로, 2024년 콘크리트 전주(2025년 2월 기준 약 985만기) 자동진단 솔루션 개발로 전주의 유지보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과 생성형 AI 업무 활용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행정 문화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시행으로 2024년 하반기 구입전력비 2,000억 원 절감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통해 약정량 700MW(46개 고객)를 확보하여, 작년 하반기에 약 2,000억 원의 구입전력비 절감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했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으로 주파수 하락 시 한전과 사전에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긴급 차단하여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전력계통 안정화 제도이다. 기설치된 변전소를 활용함으로써 투자비가 추가로 들지 않고, 시행 즉시 발전계약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제도 시행으로 동·서해안 지역의 발전계약이 약 1.5GW 완화되었으며, 저비용 발전기를 추가로 운전하게 되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2,000억 원의 구입전력비를 절감하였고, 향후 매년 약 4,1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도 신입사원 700명 채용
한전은 지난 3월 11일부터 2025년도 상반기 대졸 수준 공채(310명) 지원서를 접수하며 연간 700명 규모의 신규 정규직 채용을 시작했다. 이는 2024년도 대비 약 20% 증가한 인원이자 2022년 이후 한전의 최대 채용 규모로서,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26년 만에 최저치인 0.28까지 하락한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일자리 외에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구직자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900명 규모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간 한전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전 임직원이 함께 희망퇴직, 인력 재배치 등 고강도 자구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올해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채용될 신입사원은 기술 분야 인력을 약 80% 수준으로 채용하고, 입사 이후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행 등 핵심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전력사업 혁신을 이끌어갈 원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전 상반기 대졸 수준 공채 입사 지원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 전형, 3차 역량면접, 4차 종합면접을 거쳐 6월 중 최종합격자 3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과학기술대와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 개설
한전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 계약학과 과정을 개설하고, 지난 3월 7일 ‘제1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에너지 신기술 융합학과는 실무경험을 보유한 고졸 직원들이 대학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에너지 맞춤형 후 진학 교육과정으로 전력그룹사인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도 함께 참여하여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과정 개설은 지난해 9월 한전이 발표한 ‘고졸 인재 종합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학력 중심 사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 중심의 청년 자립 선순환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학과는 졸업 시 공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 정규 과정으로 재직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설계됐다.



한전-국립공원공단,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전은 국립공원공단과 지난 3월 1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립공원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불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국립공원 내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세부내용으로 전력설비와 수목 간 안전 이격거리 유지 및 위험수목 관리·제거, 산불감시 인력 공조체계 구축으로 취락지 감시 및 초동대응 강화, 전력설비를 활용한 AI 기반 산불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주요 탐방로 및 지역행사 등 산불 예방 합동 홍보,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 있다.



한전-중진공,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확산 ‘맞손’
한전은 지난 3월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불황 및 원/달러 환율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설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투자 여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양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에너지효율 진단과 탄소중립 사업 참여 희망기업 공동 수요발굴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중진공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과 한전의 에너지효율향상 사업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에너지효율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KEPCO〉 N행시

4월호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지어 보세요.
참여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4월의 주제 ‘자긍심’

N행시 예시

자 신을 믿는 마음, 그 씨앗을 심어
긍 정의 힘으로 키워나가면
심 장 속에 빛나는 자긍심이 되리라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후 답변 제출
접수 마감 4월 20일(목)까지
이벤트 상품 커피 기프트콘 2만원권
선물발송일 5월 10일경



이벤트 참여하기

3월호 N행시 당첨자

이*미(3648)
비로소 알았어 봄바람이 네 향기를 품고 오는 이유를.
전하지 못한 진심까지도 꽃잎에 실어 보내려는 거겠지.

양*민(0021)
비밀스럽게 흘러가는 힘.
전기는 세상을 움직인다.

양*혁(1945)
비방은 멈추고,
전하는 말에 사랑과 희망으로.

김*희(7015)
비범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같은 삶을 통해 만들어진다.

송*택(4066)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전이 바로 비전입니다.

권*현(8768)
비록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전력을 다한 너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

박*수(1965)
비전은 내 삶의 멋진 도화지
전부 색칠해 나만의 걸작으로!

전*진(8979)
비틀거려도 괜찮아.
전부 안아줄테니.

김*한(0248)
비로소 시작된 새로운 도약,
전력을 다해 밝은 미래로!

박*교(1293)
비 온 뒤에 땅이 단단해지듯
전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해 세계적인 에너지 리더로 거듭나길!

KEPCO

2025
April
vol.622

통권 622호 2025년 4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5년 4월 1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15, 3125, 3128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이팝
인쇄 ㈜대유기획인쇄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R 운동 좀 하고 올게요
웰빙 운동시설

⚡ 조용하고 안전해요
옥내화 변전소

📖 주말엔 책 보러 갈 거예요
작은 도서관



신나게 뛰어 놀아요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타러 갑니다
중앙광장



강아지와 즐겁게 산책합니다
힐링 산책로

마포구 중부변전소를 모티브로 제작한 가상이미지입니다

변전소로 놀러가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변전소가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변전시설은 옥내화 및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과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생활의 중심이 될 새로운 변전소를 기대해 주세요.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 변전소 산책로, 놀이터, 작은 도서관, 강아지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갖춘 신개념 변전소

